



제목	Вращающиеся зеркала. Постмодернизм в литературе Турции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발행일	2014. 1. 5.
저자	Репенкова М.М.
출판도시	Moscow
페이지수	239
ISBN 또는 ISSN	978-5020364271

내용 요약

『회전거울. 터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포스트 문화 현상이라는 시각에서 20세기~21세기 터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을 이야기한 책으로 오르한 파묵, 무라한 문간, 나즐리 에라이 빌게 카라수, 피나르 큐르 등의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의 산문 작품들(주로 소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과 미학, 언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쓰는데, 이는 터키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학 사조 발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00년대에 터키 모든 예술계의 주된 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서사적, 서정적, 멜랑콜리한, 또는 정신분열적인 터키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은 독특한 민족적 특색이 덧입혀짐으로써 세계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도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세대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의 작가들 덕분에 터키 문학은 진리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술적 사상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게 되었다. 비직선성, 다원성/일원성, 상대성, 다양성을 기조로 한 새로운 사상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탈이데올로기화, 무지항, 반전체주의의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사회적 경향은 문학에서 중도주의에서 분산주의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외에도 터키 문학이 전통적인 양식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식으로 전환될 시기에 큰 영향을 끼친 《신비한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포스트문화와 해체적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의 주요 개념도 설명하고 있다.